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협력: 동향과 전망

김경숙 책임연구위원
kgs07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현황
- III.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과 협력 동향
- IV. 쿼드 협력의 한계와 전망
- V.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문 초록

미국은 2017년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4자 안보협의체(쿼드)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쿼드 국가들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이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국익에 대한 고려에 따라 배제와 포용으로 엇갈린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면에서의 모호성과 쿼드 국가들 간 입장 차, 아세안 회원국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쿼드가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대화체로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쿼드 중심의 안보 질서가 형성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정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포용적인 지역구도 구축과 연대전략을 통해 지역안정과 평화를 증진함으로써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

핵심어: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미중 전략적 경쟁, 신남방정책, 중견국 외교

I. 문제 제기

-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8 국가안보전략(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¹⁾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었고, 미 국방부²⁾와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³⁾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
 - ※ 2017년 11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을 공식화하고,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2018.5.30.)
 - ‘2018 국가안보전략(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지역차원에서의 전략대응’(The Strategy in a Regional Context)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 국익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지역으로 강조하고, 중국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한 최대의 도전 국가로 규정
- 자유주의 질서와 이에 반하는 억압적인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
 -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핵심 축으로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강화 등 긴밀한 협력을 강조
- 그 일환으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구성원으로 전략다자안보협의체인 ‘4자 안보 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이하 쿼드)를 구축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나, 쿼드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

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2)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3)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accessed: November 15, 2019).

-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이 ‘규칙기반 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차
 - 중국을 봉쇄하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수용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
- 쿼드의 방향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토(NATO)와 같은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대화체로 남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압력을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쿼드 중심의 안보 질서가 형성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 이에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이들 쿼드 국가들의 인식과 협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I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현황

-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을 둔(Rules-based) 질서 구축을 목표로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관련 이행 전략 및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⁴⁾
 -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공고화, 분야별로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4)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4호 (2020), p. 1.

가. 경제개발

-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비전(Economic Vision)⁵⁾을 통해 경제정책 프로그램 구체화
 - 역내 국가들에 대해 1억 1,350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에너지 및 인프라건설 지원,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등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추진
 - ※ 개발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의 연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비전 실행을 위해 ‘빌드법(BUILD Act of 2018)’⁶⁾ 제정

나. 안보

- 미국의 안보태세 강화
 -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안보 및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공약을 규정한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⁷⁾을 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상·하원 조율로 매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반영
 - ※ 하원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상원은 중국에 대응하는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더 초점⁸⁾

5)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30일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비전(Economic Vision)을 발표함. Mike Pompeo,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July 30, 2018, <https://www.state.gov/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 (accessed: July 15, 2019).

6) “BUILD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New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CRS Report, January 15, 2019,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461/4> (accessed: July 15, 2020).

7)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736> (accessed: July 15, 2020).

8) H.R.6395-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395/text?q=%7B%22search%22%3A%5B%22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of+2021%22%5D%7D&r=2&s=2>; S.4049-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4049/text?q=%7B%22search%22%3A%5B%22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of+2021%22%5D%7D&r=1&s=2> (accessed: August 13, 2020).

- 「2021 국방수권법안」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를 수립⁹⁾
- PDI를 위해 미사일 방어, 전진 자세 강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 개선 등 13개 세부항목에 국방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포함해 22억 달러(2조 3,811억 원)를 승인하고,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reconsider)하는 내용을 포함
- 2020년 대중국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표(5.20)를 통해 기존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재확인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공식화¹⁰⁾
 - 동 보고서는 중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the Chinese Communist Party)으로 지칭하고, 자국의 이익과 이데올로기 수호를 위해서 국제질서의 전환을 모색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반중 연대로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
 - 중국 대응을 위해 4대 이행계획(자국민 보호, 국익증진, 평화유지, 영향력 확대)을 제시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조할 수 있는 파트너로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¹¹⁾
 - ※ 유럽연합의 중국 전략(EU-China: A Strategic Outlook), 일본의 자유와 공개비전, 인도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성장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과의 협력을 언급

9) 미국 의회는 12월 2일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연속 포함.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December 2, 2020, <https://docs.house.gov/billssthisweek/20201207/CRPT-116hrpt617.pdf> (accessed: December 10, 2020); Jon Harper, "Bipartisan Support for New Counter-China Fund," NTSA, July 21, 2020, <https://www.nationaldefensemagazine.org/articles/2020/7/21/bipartisan-support-for-new-counter-china-fund> (accessed: October 5, 2020).

10)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1, 2020,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accessed: July 21, 2020).

11) Ibid., p. 2.

- 4자 안보대화(Quad)와 쿼드 플러스
 - 미 국방부 보고서는 역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데 일종의 파트너십 국가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대만을,¹²⁾ 2020년 ‘대중국 전략보고서’는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
 - ※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대만 4개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
 - 미 의회는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해 2020년 12월 18일 현재 12차례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 시행으로¹³⁾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의지를 과시
 - ※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를 우려해 「대만법」(TAIPEI Act, 2020.3 발효)을 제정해 미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¹⁴⁾

다. 거버넌스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및 해양안보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군사훈련 재개¹⁵⁾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¹⁶⁾하였으며,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5월 까지 총 5회 작전 시행¹⁷⁾

12)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30.

13) “China Says Tailed U.S. Warship in Taiwan Strait.”

14) 허재철·박진희·오윤미·최재희,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제3권 제9호 (2020. 3. 30).

15) Zoltai Alexandra, “Trump and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Pivot to Obama?,” PAGEO Research Institute, February 21, 2018, <http://www.geopolitika.hu/en/2018/02/21/trump-and-the-south-china-sea-conflict-pivot-to-obama/> (accessed: March 25, 2018).

16) Geoff Ziezulewicz and Shawn Snow, “Navy Conducts Year’s First FONOP in South China Sea,” NavyTimes, January 28, 2020, <https://www.navytimes.com/news/your-navy/2020/01/28/navy-conducts-years-first-fo-nop-in-south-china-sea/> (accessed: May 25, 2020).

17) 1월 28일, 3월 10일, 4월 29일, 5월 28일 실시됨. 강석울, “미중 지정학 경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정세분석」, 2020년 5월 22일, pp. 2-3; “2020년 5월 28일 미 해군의 서사군도 FONOP,” 「KIMA뉴스레터」 제767호 (2020년 6월 5일).

- ※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5회 작전을 실시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그 횟수가 매년 증가
- 남중국해에서 루즈벨트 항모타격단(CSG: Carrier Strike Group)과 원정타격단(ESG: Expeditionary Strike Group)의 합동훈련 실시(2020.3.15.~3.18) 및 미 전투함 작전 재개¹⁸⁾
-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이후 B-52H, B-1B 전략폭격기 등 무력시위(elephant walk)를 통해 공군 투사 능력 현시¹⁹⁾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변영네트워크(EPN)
 - 코로나 19 확산과 중국 책임론 공방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를 구상 중
 - ※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등의 참여를 독려

III.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과 협력 동향

1.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과 전략적 입장

가. 미국과 쿼드 참여 3국(일본, 호주, 인도)의 인식과 입장 차이

-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 회복, 전략적 자원 확대, 중국 견제 의도로 전략을 추진

18) “Theodore Roosevelt, America Strike Groups Conduct Expeditionary Strike Force Training,” U.S. 7th Fleet, March 18, 2020; USNI News, “China Issues Muted Response to U.S. Warships near South China Sea Standoff,” U.S. 7th Fleet, April 21, 2020; “U.S. Navy and Royal Australian Navy Team up in the South China Sea,” U.S. 7th Fleet, April 22, 2020.

19) “Air Force Bombers Fly over South China Sea in Latest Foray into Contested Space,” *Stars and Stripes*, April 30, 2020.

- 일본은 미국의 패권 지원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높이고, 공세적인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강조
- 인도는 미중 사이에서 최적화된 ‘이중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
 -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으로 ‘강한 인도’의 외연 확대, 즉 지역 안보 문제에서 영향력을 더 확보하고,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지역으로 통합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
-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미래가 달린 “기회의 공간”으로 중시
 - 호주는 규칙기반 질서 유지와 위협 분산을 위한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²⁰⁾
 - 호주의 안보 취약성 보완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견제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안보협력 강화

나. 중국에 대한 인식 공유, 대응 이견

- 쿼드 국가들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행동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의 지역패권으로의 부상에 반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이견
 -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 미국의 관여를 통한 지역안정과 중국의 기존 지역질서 편입을 선호하는 인도와 호주는 중국을 포용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본 역시 중국을 어느 정도 포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²¹⁾

20) 호주는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A Strategy of Australia’s National Interest)’에서 “인도·태평양”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2017년 11월 14일 만에 발간한 ‘외교백서(2017)’에서 중국을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 Australia’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November 2017,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minisite/2017-foreign-policy-white-paper> (accessed: October 15, 2020).

21) 4국이 쿼드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 도구보다는 개별적인 역내 인프라 투자를 조율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정훈·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쟁점 및 전망,”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제1호 (2020년) 참조.

※ 2019년 9월 첫 장관급회의에서 ‘공유하는 가치’,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 강조를 통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4국 공동성명 발표나 회견이 없었던 것은 참여국들이 ‘중국 견제’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²²⁾ - 특히, 일본, 호주와 달리 미국의 동맹이 아닌 인도는 쿼드에 동참하면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 봉쇄의 전략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 일정 거리를 유지했으나 2020년 중국과 국경에서 유혈 충돌 사태 이후 태도 변화

다.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 확대

-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 국가로 인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이 인도를 주요 안보 파트너로 지정하면서 양자 관계는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²³⁾
 - ※ 2015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공동전략 비전(India-US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을 발표²⁴⁾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인도를 국빈 방문해 양국 정상 간 우의와 신의를 과시하였으며, 인도는 아파치 및 MH-60 로미오 헬리콥터를 포함하여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²⁵⁾
 - 2018년 7월에는 인도에 첨단기술제품 수출 통제를 완화한 ‘전략적무역허가 1단계 지위(STA-1)’를 부여하고,²⁶⁾ 새로운 에너지 개발협정을 체결하는 등 나토 동맹국과 한국, 호주, 일본과 동일한 접근권을 부여

22) 김진명, “반중연대 쿼드 출범…미국, “중국 억압에서 파트너 지켜야,” 『조선일보』, 2020년 10월 7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0/10/07/65CAUUQH6NCHLOSASUCNQZMQYM/> (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23) 전병곤 외,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81-98.

24) 미·인 양국은 2015년에 2005년 체결한 양국 군사협력 협정을 보다 강화한 「양국방위관계체계」(2015 Framework for the US-India Defense Relationship)에 합의.

25) “What Will Trump’s Visit Do for US-India Ties?,” BBC, February 23, 2020, www.bbc.com/news/world-asia-india-51489042 (accessed: February 25, 2020).

26) 이홍규, “로스 美 상무, 對인도 첨단기술제품 수출 통제 완화,” 뉴스핌, 2018년 7월 31일, <https://m.newspim.com/news/view/20180731000150>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 같은 해 9월 미국과 인도 간 첫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를 개최해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을 체결함으로써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와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해졌고,²⁷⁾ 2020년 제3차 연례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군사지리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교류협력협정」(BECA·베카) 체결
- 이로써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18년 만에 4대 협정(GSOMIA, LEMOA, COMCASA, BECA) 체결을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군사분야 협력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²⁸⁾
 - ※ 전략적 중립성을 위해 베카 체결을 망설이던 인도의 태도 변화는 중국과 국경분쟁 재점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기인
- 특히 미국의 위성정보 공유로 인도의 정보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
-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외교전략으로 먼저 사용한 일본은 중국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안보·경제 협력을 중시
 - ※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초보적인 형태의 지역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²⁹⁾
- 호주는 인도를 중국, 일본과 함께 가장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와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
 - 인도는 2014년 5월 모디 총리 등장 이후 쿼드 협력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 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지렛대

27) 김영현, “미국·인도 ‘동맹급’ 군사협력 합의…중국 견제 한마음,” 연합뉴스, 2018년 9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6185300077>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28) 정인환, “미국-인도 ‘중국 겨냥’ 군사협력 확대,” 『한겨레신문』, 2020년 10월 27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7477.html> (검색일: 2020년 11월 15일).

29)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정책연구용역, pp. 238-239.

2. 협력 동향

가. 쿼드 전략대화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확대·강화인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반중 연대 노선 강화
- 쿼드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³⁰⁾
 - 쿼드 회의는 2017년 11월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으로 시작했으나 2019년 9월 4차 회의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코로나19 와중에도 대면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2020.10.6, 도쿄)함으로써 장관급 회담 정례화³¹⁾
 - ※ 2019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020년 10월 대면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2월 고위급회의(12.18, 화상)를 화상으로 개최해 북한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전략적 상황 변화를 검토하고, 2021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³²⁾
 - ※ 10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Nikkei Asian Review와의 인터뷰(2020.10.6)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를 공식화하고 잠재적으로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쿼드가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안보 협의체임을 강조³³⁾

30) 쿼드 회의는 2017년 11월 이후 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총 9회 개최(2017년 11월, 2018년 6월, 11월, 2019년 5월, 9월, 11월, 2020년 9월(화상), 10월, 12월(화상)), 이 가운데 2회(2019년 9월, 2020년 10월)가 장관 간 회담이었음.

31) Abhijnan Rej, "Quad Foreign Ministers Meet in Tokyo Amid Post-Pandemic Concerns," *The diplomat*, October 7, 2020, <https://thediplomat.com/2020/10/quad-foreign-ministers-meet-in-tokyo-amid-post-pandemic-concerns/> (accessed: November 7, 2020).

32) 류지복, "쿼드 4개국 고위관료 회담, 북한·남중국해 등 논의," 연합뉴스, 2020년 12월 19일, yna.co.kr/view/AKR20201219008300071 (검색일: 2020년 12월 19일).

33) Iroyuki Akita and Eri Sugiura, "Pompeo Aims to 'Institutionalize' Quad Ties to Counter China," *NIKKEI Asia*, October 6, 2020,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Pompeo-aims-to-institutionalize-Quad-ties-to-counter-China> (accessed: October 20, 2020).

나. 경제분야

- 쿼드는 디지털 경제·에너지·인프라 관련 양자 혹은 소다자 중심으로 수시로 역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반중 연대 강화
 - 일본, 호주, 인도 3국은 코로나 이후 중국의 무역지배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역내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 (9.1 경제장관 화상 회담)
 - ※ 3국 파트너십은 인도의 RCEP 탈퇴³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를 지역 무역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대안³⁵⁾
 - 미·일 양국은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JUSEP) 공동성명’(9.30) 등 세 분야의 협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
 - ※ 일본은 쿼드 국방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의욕적
- 대안적 인프라 및 경제개발 추진: 블루닷네트워크(BDN: Blue Dot Network)
 -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미국의 아태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블루닷 네트워크(BDN) 계획을 발표³⁶⁾
 -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 (DFAT)가 참여
 - ※ 일본은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 일본이 주도하는 질적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및 미국이 주도하는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등 연계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34) 인도는 농산물의 막대한 수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2019년 11월 RCE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으나 나머지 RCEP 참여 15개국은 2020년 8월 “주목할 만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선언하고, 2020년 11월 체결 계획을 발표함. “Japan and Australia Wary of China as RCEP Talks Enter Last Stretch,” NAR, October 29, 2020.

35) 미국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 없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전망 제기. Michael G. Plummer, “East Asia Decouples from the United States: Trade War, COVID-19, and East Asia’ New Trade Blocs,” PIIE, Working Paper 20-9, June 2020, <https://www.pii.com/publications/working-papers/east-asia-decouples-united-states-trade-war-covid-19-and-east-asias-new> (accessed: September 25, 2020).

36) Blue Dot Network, <https://www.state.gov/blue-dot-network/> (accessed: August 3, 2020); 박민숙,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 & 트렌트」, 2020년 6월 15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579&mid=a20200000000&board_id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 미국은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LMI), 환인도양연합(IORA) 등 주요 지역 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
- 호주는 쿼드 협력과 아세안 지역 협력 간 ‘투 트랙 외교전략’을 추진 중인데 ‘쿼드’ 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아세안-호주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합의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 대항
 - ※ 아세안-호주 인프라 개발 협력은 호주가 중국에 대항해 지역 파트너 계획을 분명히 밝힌 첫 번째 행동이란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³⁷⁾
- 중국은 미국의 ‘블루닷 네트워크’ 계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만약 중국을 겨냥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³⁸⁾
- 미국 주도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형성(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과 ‘쿼드 플러스’
 - 쿼드 4개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 개발 협력과 향후 국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의 경제연합체를 만들자는 ‘쿼드 플러스’ 구상 준비 중
 -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참여시킨다는 계획³⁹⁾이나 아직은 구상 단계로 의사 타진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 현황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보급 전화 협의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초청⁴⁰⁾
 - ※ ‘7개국 협의’는 9월 11일 현재까지 모두 12차례 개최
 -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탈중국 다국적기업들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쿼드플러스 동참에 긍정적

37) 고직순, “쿼드, 아세안 투 트랙, 외교적 묘수일까?,” 『한호일보』, 2018년 3월 22일,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50> (검색일: 2020년 6월 7일).

38) Shi Tian, “US Blue Dot Network Won’t Succeed If It Targets China,” *Global Times*, November 5, 2019,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69053.shtml> (accessed: July 15, 2020).

39) 최준영, “미국이 던진 ‘EPN 파문’, 양자택일 요구받나,” 『시사저널』 제1601호 (2020년 6월 20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10>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40) 한기재, “美 공들이는 ‘쿼드 플러스’… 한국, ‘反中 안보 연대’ 참여 딜레마,” 『동아일보』, 2020년 9월 14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14/102915093/1>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 다만 역시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는데, 2018년 5월 외교부 산하에 인도 태평양 부서(the Indo-Pacific Affairs Section)를 설치하고 8월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Indo-Pacific Security Dialogue)를 개최하는 등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의 역할 확대를 모색⁴¹⁾
 - ※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적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민주국가로 높은 수준의 파트너’로 언급함으로써 1972년부터 유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화⁴²⁾
- 중국 기술 굴기 저지를 목표로 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 미국은 통신 기술력을 통한 안보위협을 근거로 화웨이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5G, AI,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
 -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수출제한 기업으로 7차례 지정⁴³⁾

다. 안보분야

- 항행의 자유, 영토 및 해상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등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과 네트워크 강화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비행금지구역 선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공세와 압박을 본격화
 -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관련 처음으로 중국 기업 24개와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⁴⁴⁾하고, 2016년에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법정 판결을 승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압박을 계속

41) Denny Roy, "Taiwan's Potential Role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onvergence in the South Pacific," NBR Special Report, No. 77 (March 2019), pp. 11-14.

42) Howard Wang, "Taiwan's Security Rol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June 27,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6/taiwans-security-role-in-the-u-s-indo-pacific-strategy/> (accessed: August 20, 2020); 한중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변국 입장, 한국 해군에 대한 함의," pp. 12-13.

43) 박민숙,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발표."

44) 박영서, "미국, 남중국해 관련 중국 기업 24곳 제재," VOA, 2020년 8월 28일, <https://www.voakorea.com/world/world-today/us-china-1> (검색일: 2020년 9월 27일).

- 미·일·인·호 4국 ‘말라바르’(Malabar) 해상 훈련⁴⁵⁾
 -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상 훈련은 2020년 처음으로 호주를 초청해 쿼드 4개국이 모두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는데, 10월 쿼드 외교장관 회담 직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동 훈련이 쿼드의 해양 안보협력을 위한 아키텍처로 발전할지 그 향방에 주목⁴⁶⁾
 - ※ 호주는 쿼드가 논의되던 2007년을 제외하고는 불참하다가, 2020년 13년 만에 참여하였고, 2007년 참가 후 비정기적으로 참가했던 일본은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참가하면서 3자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으로 진전
 - 이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2015.4)을 통해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과 역할이 확대된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미국과 인도는 2016년 육·해상 공동 훈련 외에 공군기지를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안보동맹’임을 재확인
 - 호주와는 2014년 ‘군사태세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1년부터 호주 북부의 다윈에 미 해병대를 배치해 해상 능력 구축, 인도적 지원과 재해구조를 위한 훈련 실시 등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
 - ※ 호주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2020 국방 전략 및 구조 계획(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and 2020 Force Structure Plan)’을 발표(7.1)⁴⁷⁾

45) 말라바르(Malabar)는 1992년부터 인도와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번갈아 가며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합동훈련으로 2002년부터는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46) Jesse Johnson, “Malabar Military Exercises with ‘Quad’ Nations Begin in Message to China,” *The Japan Times*, November 4, 2020,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1/04/asia-pacific/malabar-military-exercises-china-quad/> (accessed: November 10, 2020).

47) 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n Government,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and 2020 Force Structure Plan,” July 1, 2020, https://www.defence.gov.au/StrategicUpdate-2020/docs/2020_Force_Structure_Plan.pdf (accessed: September, 5, 2020).

- 미국의 무기판매
 - 미국은 일본(F-35 스텔스기, 231억 달러), 대만(신형 F-16, 80억 4,000만 달러), 한국(피스 크립톤 정찰기, 2억5,000만 달러) 등에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⁴⁸⁾
 - ※ 미국의 무기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사장비 해외 판매
 -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F-35A 전투기 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구매로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F-35B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 배치 가능
 -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방위능력을 높이고 미국과 해당국 간 무기 상호운용 체계 강화는 물론 미국 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도움

IV. 쿼드 협력의 한계와 전망

1. 쿼드 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2017년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9년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 2019 대중 전략 보고서로 구체화하였으나 전략의 구체성 결여, 쿼드 국가의 구조적 한계, 쿼드 플러스 대상 국가들의 딜레마, 아세안 국가들의 쿼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계 노정⁴⁹⁾

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성 결여

- 미국 우선주의와 국제규범과의 충돌, 원칙과 정책 간의 괴리가 있으며, 쿼드가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대화체로 유지될 것인지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입장 혼선

48) 이재철, “일본·대만, 트럼프에 44조원 무기계약 선물…美 역대급 무기 수익률 달성,” 2020년 8월 21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2678/>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49) 박원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2019), pp. 227-229.

-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미·일·인·호 4개국을 핵심으로 역내 파트너들을 견인해 중국에 맞서는 다자 안보기구인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나 이를 통해 반중 전선을 구체화 할지 미확정 단계로 구체적 계획과 명확한 입장 부재
 - 9월까지만 해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토(NATO)가 ‘훌륭한 기준’이라고 언급⁵⁰⁾
 - 비슷한 시기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이라고 정의하면서, 쿼드 참여도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닌 공동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 피력⁵¹⁾
 - 10월 들어 비건 부장관은 쿼드 자체가 개념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쿼드 확장’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후퇴⁵²⁾
 - 불과 한달 새에 미국의 견해가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는 데서 이익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그룹’으로 하향 조정
 -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 그 밖의 안보 영역에서도 공동협력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등 입장 불명확

- 쿼드의 협력 기준과 정례화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 포위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라는 비판도 제기
 - 중국은 자국 포위 전략인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마지노선 넘는 행위’라고 비난⁵³⁾

50) 김재중, “미국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중국 “마지노선 넘는 행위”,” 『경향신문』, 2020년 9월 1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71907001#csidx6d655105de511ad9ec303e072be127a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51) 김윤형, “미국,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 『한겨레신문』, 2020년 10월 5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64443.html>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52) 신금선, “비건 美 부장관, 쿼드 확장 논의 아직 일러…안보 영역에서 논의 해 나가야,” 서울평양뉴스, 2020년 10월 21일,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8> (검색일: 2020년 10월 22일).

53) 김재중, “미국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중국 “마지노선 넘는 행위”.”

나. 쿼드 국가의 구조적 한계

- 인도-태평양 전략의 효과는 4개국 간의 다자협력에 크게 좌우되나, 쿼드 참여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부침
 - 2007년 쿼드 시도의 좌절 경험을 반추 필요
 - 당시 중국의 반발과 싱 인도 총리의 ‘중국 봉쇄’ 반대, 중국 전문가 출신 호주 총리 취임(케빈 러드) 이후 화해전략 추진으로 쿼드 무산
 - 두 번의 장관급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회견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중국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기구 가능성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 차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
 - 폼페이오 장관은 9월 쿼드 회의 후 가진 NHK 인터뷰에서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면서 “아세안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역 전체로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⁵⁴⁾
 - 그러나, 2017년 11월 쿼드 형성 이후 정기적인 실무 장관급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외 3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 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
 -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가 배제보다는 포용을 주장할 뿐 아니라 쿼드 구상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안보의 기축으로 삼으면서도 반중 연대에 대해서는 전략적 고민 피력⁵⁵⁾
 - 게다가 이들 3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투자 확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이 절실한 상황
- ※ 2019년 기준 호주·일본·인도의 수출에서 중국이 1·2·3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

54) 김진명, “반중연대 쿼드 출범…미국, “중국 억압에서 파트너 지켜야”, 『조선일보』, 2020년 10월 7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0/10/07/65CAUUQH6NCHLOSASUCNQZMQYM/> (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55) 김윤형, “미국,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

- 향후 미중 대립 심화에 따라 쿼드 및 역내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외교 행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 쿼드 플러스 대상 국가들의 딜레마

- 트럼프 행정부는 반중 경제동맹 구축 특히 화웨이 제재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을 압박하고, 쿼드 확대를 거론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에 대해 우려
 -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미국이 중국을 대체해서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 증폭
 - ※ 2000년대 말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 역시 미국의 의지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아세안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주효
 - 쿼드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여 전략경쟁을 격화시키고 강대국 간의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 △미국과 나머지 세 국가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체제로 지역 아키텍처(architecture)가 재편될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와 강대국 주도의 안보 질서 형성으로 아세안의 자율성과 역할 축소 등을 우려
- 한국 역시 미국의 반중 연대 동참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
 - 지난 10월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방한한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반드시 동참할 것을 강조⁵⁶⁾
 - 아직 반중 전선이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미일인호 4국에 한국까지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밑그림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56) 이상현,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2020-23 (2020. 10.19).

2. 전망

-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 미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대중 강경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로 미중 갈등 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⁵⁷⁾
 - ※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정책 핵심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 동맹 강화, 대중 견제⁵⁸⁾
 - 워드 코로나19 시대의 지속으로 미중 갈등이 무역·기술·군사에서 백신 경쟁, 인권·기후변화 등으로 확산될 것이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미중이 투입할 자원을 제약할 가능성
-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동맹과 협력 중시
 -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항행 원칙 등 국제규범을 중시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연대 강화에 동맹국 및 우호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과 8월 발표된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취임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최를 언급했고,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해 새로운 민주주의 10개국(D-10)회의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 만약 민주주의 연대의 공통 의제가 부패, 인권, 권위주의와의 싸움 등이 될 경우,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반발할 가능성
 - ※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필리핀, 태국 등과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특히 필리핀이 친중 성향을 보였던 전례에 주목

57) 중국은 남중국해연구원(NISCSS)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미 군사력 현황 보고서」(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2020)를 통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대만해협 통항 작전을 자신의 주권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함.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NISCSS),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2020 Press Release,” June 23, 2020, <http://en.nanhai.org.cn/index/info/content/cid/20/id/8273.html> (accessed: November 10, 2020).

58)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1-23/why-america-must-lead-again> (accessed: June 1, 20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ent-Elect Biden on Foreign Policy,” November 7, 2020, <https://www.cfr.org/election2020/candidate-tracker> (accessed: November 10, 2020).

- 쿼드의 방향성 불투명
 -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성 결여, 쿼드 국가의 입장 차, 아세안 회원국들의 우려 등으로 쿼드가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대화체로 유지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
 - 미국은 중국 포위 또는 봉쇄에 부담을 가지는 쿼드 국가, 아세안 국가들을 고려해 군사안보 일변도보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쿼드, 쿼드 플러스 협력을 추진⁵⁹⁾할 것이나, 관련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2007년 쿼드를 시도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인도와 호주의 탈퇴 선언으로 좌절된 경험을 복기할 필요
 - 2007년과 달리 2017년에는 중국의 팽창 공세에 따른 안보위협이 가중되면서 쿼드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재해 대응’에서 중국 견제라는 ‘안보’로 성격 변화
 - ※ 2004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초대형 쓰나미 복구 논의를 위한 임시 협의체(쓰나미 코어 그룹)로 출발해 2007년 인도양 벵골만에서 미국, 인도의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 일본이 참여해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안보협의체 형태로 발전⁶⁰⁾

- 쿼드 국가들의 안보·경제 딜레마 심화 가능성
 -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는 호주가 대표적으로 헤징 전략 차원에서 미중 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두 트랙 전략과 대미 편승전략을 추진했으나,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양측으로부터 압박 가중
 - 호주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자 중국은 경제카드(무역 보복 조치)로 압박하였고, 호주 지방 정부(빅토리아 주 정부)의 중국 통신 사업 참여에 대해 미국은 안보카드로 압박
 - ※ 5개국 정보기관 네트워크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서 호주를 ‘끊어버릴 수 있다’(simply disconnect)는 미국의 압박에 호주 정부는 결국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 결정

59) 이기태·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37.

60) 2007년 말라바르 훈련에는 싱가포르도 참여함. 한기재, “美 공들이는 ‘쿼드 플러스’… 한국, ‘反中 안보 연대’ 참여 딜레마.”

- 아세안은 해경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 관점’(AOIP: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 기반을 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⁶¹⁾
 - 아세안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별도의 공동 군사훈련을 시행 중이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안보협력 및 국방력 강화에 주력
 - ※ 2018년 10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프레임이 아닌 아세안과 중국 단독 군사훈련⁶²⁾이 시행되었으며, 2019년 9월에 아세안과 미국이 합동해상훈련(AUMX: ASEAN-U.S. Maritime Exercise)을 실시⁶³⁾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2019년 11월 각각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으며,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규범(COC) 제정 등을 주도
 - ※ 베트남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평화, 자주적 방위, 투명성 증진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군 현대화에 역점

61)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2019.

62) 아세안과 중국 간 군사훈련은 아세안이 단일국가와 시행한 최초의 군사훈련으로 해상에서의 사고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군사의료와 합동 수색구조 훈련이 진행되었음. “ASEAN and China Successfully Conclude ASEAN-China Maritime Exercise,” MINDEF Singapore News Releases, October 27, 2018,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8/october/27oct18_nr (accessed: October 28, 2020).

63) SEACAT(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와 병행한 제1차 미국-아세안 합동 해상 훈련이 태국만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실시되었으며, 훈련에 참여한 군함들은 남중국해 수역을 통과하였음. 미국은 9.11사건을 계기로 2002년부터 동남아에서 테러를 포함해 해적, 불법밀수, 해상 불법 활동 등 초국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훈련을 전개하고 있는 데 참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SACAT(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명칭은 2012년 SEACAT(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기준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Lim Min Zhang, “First Asean-US Maritime Exercise Begins in International Waters in South-east Asia,” *The Strait Times*, September 2, 2019,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first-asean-us-maritime-exercise-to-take-place-in-gulf-of-thailand-and-south-china-sea> (accessed: October 28, 2020).

V.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향

1. 시사점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쿼드 핵심국가로 설정해 관계 증진에 주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쿼드 및 역내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외교 행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한 대응 수단으로 국제규범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대신에 ‘번영하고, 안전한 (prosperous and secure) 인도·태평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의 일부 조정을 시사⁶⁴⁾
- 쿼드 국가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대중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만,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은 불일치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인도, 일본, 호주는 ‘자유롭고 개방된’ 뿐만 아니라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
 - 인도는 중국의 팽창적 공세를 견제하기를 원하면서도 쿼드 협력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여 전략경쟁을 격화시키고 강대국 간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
 - 인도가 자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합동 해상 훈련에 호주의 참여를 계속 거부한 것 역시 중국과 필요 이상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이유였으나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지대 유혈 충돌 이후 호주를 합동 훈련에 초청
 -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상황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
 - ※ 파이브 아이즈 참여는 미국이 초청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인도를 초청할 의사가 없음

64) 11월 미 대선 이후 스가 일본 총리 등 아시안 지도자들과 당선 축하 전화 회담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대신에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는 문구를 사용함. Sebastian Strangio, “Is Biden Preparing to Tweak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November 20, 2020, <https://thediplomat.com/2020/11/is-biden-preparing-to-tweak-the-indo-pacific-strategy/> (accessed: November 28, 2020).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동맹이자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강도 높은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
-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호주의 딜레마
 - 호주는 미중 간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분산을 위한 해징 전략을 구사했으나, 미중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도 경제안보를 갖대로 압박한다는 것과 대중 경제의존이 심화할수록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음을 인지
 - 이에 호주는 지정학 등 전략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 및 다자 안보협력과 전략 무기 도입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⁶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연대해 리쇼어링과 같은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 교역의 확대를 주장⁶⁶⁾
 - ※ 호주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공격용 잠수함 12척을 실전 배치할 경우, 지구촌 전역을 작전대상 지역으로 하는 해양방어 가능
-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 역시 더욱 좁아질 것이며, 외교역량 역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
 -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33%)이 호주보다 높아 제2 사드 보복을 당하면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가치사슬로 엮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 미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심화로 상호 인질적 상황(mutual hostage)

2. 우리의 대응 방향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쿼드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적 원칙과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65) 조영빈, “한국 1년치 국방비 ‘잠수함’에 쏟아부은 이 나라,” 『한국일보』, 2019년 5월 3일.

66) “유럽의회, 리쇼어링 반대...수입선 다변화·위기대응형 밸류체인 추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20년 4월 30일, http://kba-europe.com/xe/index.php?_filter=search&mid=board_LXQd40&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_word=%EC%9B%90%EC%9E%90%EC%9E%AC&document_srl=6501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 한국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자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로서, 지역 내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 국가로 확고한 포지셔닝 필요⁶⁷⁾
 -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세계적 역할도 커질 것이므로 높아진 위상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세계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필요
 - ※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해 새로운 ‘민주주의 10개국’(D-10) 회의로 개편 가능성

- 바이든 새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한 대미 전략 수립 및 외교 행보 필요
 - 규칙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 간 전략적 소통강화
 - 일각에서는 쿼드 중심 안보 질서가 형성될 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등을 고려해 우리의 안보 이익 관점에서 쿼드 플러스 구상 동참은 신중히 고려
 - ※ 쿼드 플러스에 대한 미 국무부의 견해가 다소 온건하게 조정된 것은 비건 부장관의 발언 이후 쏟아진 한국 등 주요국들의 ‘이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
 - 쿼드 플러스 동참 시 자칫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외교·안보적으로 미일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전략해 남북 교착도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쿼드 대신에 민주주의 연대가 강화되고, 한국이 민주주의 10개국(D-10) 회의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민주주의 클럽이 되도록 역할을 할 필요

67) 바이든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전화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 Sebastian Strangio, “Is Biden Preparing to Tweak the Indo-Pacific Strategy?.”

- 미중 대립 격화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견 국가의 전략적 가치 제고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자의 상황 조성에 치중 필요
 - 미중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해징 전략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국방 및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
 - ※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와 내부 복원력 회복을 위한 역내 공조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중견국들의 역할과 협력을 높이고,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
 - 신남방정책을 통해 포용적인 지역 구도(inclusive regional architecture)를 구축해 지역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
 - 구체적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인프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 분야 협력 이니셔티브, 해상 안전보장 관련 지원을 증대하고, 해적 소탕, 재난, 테러·사이버 공격, 보건안보 공동대응과 같이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되, 아세안의 각종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역내 지역협력 통로로 적극 활용
-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 강화 및 경제 다변화 전략 모색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백신 민족주의가 대두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 평화와 번영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
 - ‘믹타(MIKTA)’, 아세안 회원국, 인도는 물론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등과 지역 공통의 문제 특히 감염병 등 초국경 안보를 포함한 실질적 다자안보 협력 모색
 - 특히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 출범 주도, ‘유엔 보건 안보우호국 그룹’ 공동 의장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및 지역 보건 거버넌스 연대와 협력 주도

참고문헌

- 강석율. “미중 지정학 경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정세분석」, 2020년 5월 22일.
- 고직순. “쿼드, 아세안 투 트랙... 외교적 묘수일까?” 『한호일보』, 2018년 3월 22일.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50> (검색일: 2020년 6월 7일).
- 길윤희. “미국,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 아닌 역내 비공식 그룹.” 『한겨레신문』, 2020년 10월 5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64443.html>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김도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54호 (2020).
- 김영현. “미국·인도 ‘동맹급’ 군사협력 합의...중국 견제 한마음.” 연합뉴스, 2018년 9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6185300077>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 김재중. “미국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중국 “마지노선 넘는 행위.” 『경향신문』, 2020년 9월 1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71907001#csidx6d655105de511ad9ec303e072be127a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 김진명. “반중연대 쿼드 출범...미국, “중국 억압에서 파트너 지켜야.” 『조선일보』, 2020년 10월 7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0/10/07/65CAUUQH6NCHLOSA SUCNQZMQYM/> (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 류지복. “쿼드 4개국 고위관료 회담, 북한·남중국해 등 논의.” 연합뉴스, 2020년 12월 19일. [yna.co.kr/view/AKR20201219008300071](http://www.yna.co.kr/view/AKR20201219008300071) (검색일: 2020년 12월 19일).
- 박민숙.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 & 트렌트」, 2020년 6월 15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579&mid=a2020000000&board_id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 박영서. “미국, 남중국해 관련 중국 기업 24곳 제재.” VOA, 2020년 8월 28일. <https://www.voakorea.com/world/world-today/us-china-1> (검색일: 2020년 9월 27일).
- 박원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2019).
-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용역 (2018).
- 신금선. “비건 미 부장관, 쿼드 확장 논의 아직 일러...안보 영역에서 논의 해 나가야.” 서울평양뉴스, 2020년 10월 21일.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8> (검색일: 2020년 10월 22일).

- 이기태·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이상현.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2020-23 (2020.10.19).
- 이재철. “일본·대만, 트럼프에 44조원 무기계약 선물…미 역대급 무기 수익률 달성.” 2020년 8월 21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2678/>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 이정훈·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쟁점 및 전망.”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제1호 (2020년).
- 이지예. “美합참의장 “2025년쯤 중국이 미국에 최대 위협…현재는 북한.” 2017년 9월 27일. <https://news.joins.com/article/21976497> (검색일: 2018년 8월 20일).
- 이흥규. “로스 미 상무, 대인도 첨단기술제품 수출 통제 완화.” 뉴스핌, 2018년 7월 31일. <https://m.newspim.com/news/view/20180731000150>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 정인환. “미국-인도 ‘중국 겨냥’ 군사협력 확대.” 『한겨레신문』, 2020년 10월 27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7477.html> (검색일: 2020년 11월 15일).
- 정재용. “중국, 남중국해 분쟁지역 80곳에 지명 부여…영유권 강화포석.” 연합뉴스, 2020년 4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136200009> (검색일: 2020년 6월 15일).
- 조영빈. “한국 1년치 국방비 ‘잠수함’에 쏟아부은 이 나라.” 『한국일보』, 2019년 5월 3일.
- 최준영. “미국이 던진 ‘EPN 파문’, 양자택일 요구받나.” 『시사저널』 제1601호 (2020. 6. 2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10>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 전병곤·현승수·김상기·이기태·홍석훈·김한권·전재성·임수호·조충제·오운아.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한기재. “미 공들이는 ‘쿼드 플러스’… 한국, ‘반중 안보 연대’ 참여 딜레마.” 『동아일보』, 2020년 9월 14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14/102915093/1>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 허재철·박진희·오운미·최재희.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포커스』 제3권 제9호 (2020. 3).
- “2020년 5월 28일 미 해군의 서사군도 FONOP.” 『KIMA 뉴스레터』 제767호 (2020. 6. 5).
-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2019.
-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and 2020 Force Structure Plan.” July 1, 2020. https://www.defence.gov.au/StrategicUpdate-2020/docs/2020_Force_Structure_Plan.pdf (accessed: September 5, 2020).

-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November 2017. <https://www.dfat.gov.au/publications/minisite/2017-foreign-policy-white-paper> (accessed: October 15, 2020).
- Blue Dot Network. <https://www.state.gov/blue-dot-network/> (accessed: August 3, 2020).
- China Military Online. "Chinese Military Slams US Provocative Acts in South China Sea." April 28, 2020. http://eng.mod.gov.cn/news/2020-04/28/content_4864304.htm (accessed: June 7, 2020).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ent-Elect Biden on Foreign Policy." November 7, 2020. <https://www.cfr.org/election2020/candidate-tracker> (accessed: November 10, 2020).
- Glauert, Rik. "Will Taiwan Strait Tensions Lead to Conflict? Five Things to Know." *NIKKEI Asia*, September 25, 2020.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Will-Taiwan-Strait-tensions-lead-to-conflict-Five-things-to-know> (accessed: December 20, 2020).
- H.R.6395-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395/text?q=%7B%22search%22%3A%5B%22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of+2021%22%5D%7D&r=2&s=2> (accessed: October 20, 2020).
- Lim, Min Zhang. "First Asean-US Maritime Exercise Begins in International Waters in South-east Asia." *The Strait Times*, September 2, 2019.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first-asean-us-maritime-exercise-to-take-place-in-gulf-of-thailand-and-south-china-sea> (accessed: October 28, 2020).
-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NISCSS).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June 23, 2020. <http://en.nanhai.org.cn/index/info/content/cid/20/id/8273.html> (accessed: November 10, 2020).
- Johnson, Jesse. "Malabar Military Exercises with 'Quad' Nations Begin in Message to China." *The Japan Times*, November 4, 2020.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1/04/asia-pacific/malabar-military-exercises-china-quad/> (accessed: November 10, 2020).
- Plummer, Michael G. "East Asia Decouples from the United States: Trade War, COVID-19, and East Asia's New Trade Blocs." PIIE, Working Paper 20-9, June 2020. <https://www.piie.com/publications/working-papers/east-asia-decouples-united-states-trade-war-covid-19-and-east-asias-new> (accessed: September 25, 2020).

- Pompeo, Mike.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July 30, 2018. <https://www.state.gov/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 (accessed: July 15, 2019).
- Roy, Denny. "Taiwan's Potential Role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onvergence in the South Pacific." NBR Special Report, No. 77 (March 2019).
- S.4049-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4049/text?q=%7B%22search%22%3A%5B%22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of+2021%22%5D%7D&r=1&s=2>, (accessed: August 13, 2020).
- Strangio, Sebastian. "Is Biden Preparing to Tweak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November 20, 2020. <https://thediplomat.com/2020/11/is-biden-preparing-to-tweak-the-indo-pacific-strategy/> (accessed: November 28, 2020).
- Tian, Shi. "US Blue Dot Network Won't Succeed If It Targets China." *Global Times*, November 5, 2019.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69053.shtml> (accessed: July 15, 2020).
- U.S. 7th Fleet. "Theodore Roosevelt, America Strike Groups Conduct Expeditionary Strike Force Training." March 18, 2020.
- _____. "U.S. Navy and Royal Australian Navy Team up in the South China Sea." April 22, 2020.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accessed: November 15, 2019).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December 2, 2020. <https://docs.house.gov/billsthisweek/20201207/CRPT-116hrpt617.pdf> (accessed: December 10, 2020).
- Wang, Howard. "Taiwan's Security Rol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June 27,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6/taiwans-security-role-in-the-u-s-indo-pacific-strategy/> (accessed: August 20, 2020)
-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 _____.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1, 2020.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accessed: July 21, 2020).

- Ziezulewicz, Geoff and Shawn Snow. "Navy Conducts Year's First FONOP in South China Sea." *Navy Times*, January 28, 2020. <https://www.navytimes.com/news/your-navy/2020/01/28/navy-conducts-years-first-fo-nop-in-south-china-sea/> (accessed: May 25, 2020).
- "Air Force Bombers Fly over South China Sea in Latest Foray into Contested Pace." *Stars and Stripes*, April 30, 2020.
- "ASEAN and China Successfully Conclude ASEAN-China Maritime Exercise." MINDEF Singapore News Releases, October 27, 2018.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news-and-events/latest-releases/article-detail/2018/october/27oct18_nr (accessed: October 28, 2020).
-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736> (accessed: July 15, 2020).
- "BUILD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New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CRS Report, January 15, 2019.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461/4> (accessed: July 15, 2020).
- "China Issues Muted Response to U.S. Warships near South China Sea Standoff." USNI News, April 21, 2020.
- "China Says Tailed U.S. Warship in Taiwan Strait." Reuters, December 19,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usa-taiwan-idUSKBN28T0GX> (accessed: December 20, 2020).
- "Japan and Australia Wary of China as RCEP Talks Enter Last Stretch." NAR, October 29, 2020.
- "What Will Trump's Visit Do for US-India Ties?" BBC, February 23, 2020. www.bbc.com/news/world-asia-india-51489042 (accessed: February 25, 2020).
- "2020年5月22日外交部發言人趙立堅主持例行記者會."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781704.shtml (검색일: 2021년 1월 21일).

Abstract

Prospect for the Quad in the Perspective of U.S. Indo-Pacific Strategy

Kyoung-sook,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Under the schem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U.S. has tried to formalize strategic ties with India, Japan and Australia in a forum known as the Quad whose strategic aim is regarded as checking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ipating states of the Quad share the common perception that China's aggressive expansionism is a threat to the liberal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le in a response to the challenge by China, individual members take a different positions in accordance to their national interests. It is a difficult job to grasp where the Quad is heading in the environment that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getting fierce. U.S.' initiative to develop the Quad into an "Asian - NATO" is not fully embraced by all members of the Quad. ASEAN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the danger of involvement in case the Quad grows into a NATO-like security alliance. Some experts worry that South Korea's role will be reduced when a Quad-centered security order is formed. However,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revise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issue of South Korea's

Abstract

participation in the Quad should be carefully addressed. South Korea needs to find a way to develop its New Southern Policy into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Keywords: Indo-Pacific Strategy, Quad, US and China's strategic competition, Korea's New Southern Policy, middle power diplomacy

INSS

전략보고

January 2021. No. 1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